코딩은 자동화다.

C 언어, R, 파이썬 등이 언어...

모든 Ing 는 단어가 있다. 단어를 어떻게 combine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나.

컴퓨터 Ing 와 사람의 Ing 는 똑같다.

단어는 뭘까? 단어는 그 속에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의미는 정보가 들어있는 거다.

정보를 담는 그릇 같은걸 생각하면 단어가 정보를 담는 그릇.

단어라는 그릇이 하나 있다.

정보로서의 사과를 담으면 그 단어는 사과가 되고 물을 담으면 물이 된다.

computer language 에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변수 variable 이다.

정보를 담는 그릇이 변수로서 필요한거고 숫자도, 문자도 담을 수 있다.

(사람과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보를 가지고 기계한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문법이 필요하다.

기계와의 문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변수라는 그 그릇에 정보를 넣는 것. 정보를 assign 하는 것. variable assignment. (1) conditioning 에 대한 문법이 필요하다. (~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If conditioning 문법. (2)

자동화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그것은 for 라는 것을 쓴다. for loop (3)

가장 중요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공통점.

어떤 입력을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출력이 나오는게 함수. (1,2,3 을 이용해서 입력과 출력으로 packaging 하는게 함수)

함수 속에도 함수가 들어갈 수 있다. 재사용이 가능, 반복적 사용 가능.

<주피터 노트북>

In [] 부분 셀렉 해서 파란색 되면

- a 위에 셀 만들어짐
- b 아래에 셀 만들어짐
- x 셀 삭제

셀 바이 셀로 실행이 된다.

print(a) 해서 1 이 나오는건 cell 이 아니다. 이건 출력 결과일뿐.

셀 올라가서 다른 입력값 넣었던 셀 run 하고 print 하면 결과값 또 바뀜.

실행하는 단축키- shift + enter

제일 마지막에 변수명 하나를 치면 out 값으로 변수 값을 보여준다. 하나는 보여준다. print 안해도..

싱글 quote, 더블 quote 상관 없다.

한 줄에 다 쓰고 싶으면 ; 이거 이용해서 한줄로 쓸 수도 있다.

대괄호 대신에 괄호를 써도 됨.

리스트랑 tuple 은 이름만 다르다.

괄호 쓰면 tuple,

대괄호는 리스트.

tuple 이 조금 더 보안에 강하다.

a = {'a': 'apple', 'b': 'banana'}

딕셔너리.

표제어.

콤마보면 리스트에 몇 개 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

리스트랑 달리 curly bracket 을 썼다.

중괄호를 써야지 dictionary 이고 몇 개 들어갈지 부분은 콤마로.

표제어랑 설명.

fall2019 / variables -> string

변수 + 대괄호 (인덱스값)

variable[0]

a = 123; print(a[0]) >> 오류 난다. a 는 숫자 하나.

하지만,

a = [12,13]; print(a[0]) >> 12

```
a = [1, 2', [3, 4']]; print(type(a)); print(a[0]); print(a[1]); print(a[2])
>>
<class 'list'>
1 (숫자로서)
2 (문자로서)
[3, '4']
tuple 도 똑같음.
딕셔너리에서 인덱스 할 때는 숫자를 안쓰고
pair 부분의 앞부분을 쓴다.
s = 'abcdef'
print(s[0], s[5], s[-1], s[-6])
print(s[1:3], s[1:], s[:3], s[:])
<mark>#시험문제단골</mark>
n = [100, 200, 300]
print(n[0], n[2], n[-1], n[-3])
print(n[1:2], n[1:], n[:2], n[:])
>>
100 300 300 100
[200] [200, 300] [100, 200] [100, 200, 300]
(형식 잘 봐)
nlp: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처리, 텍스트 분석)
rindex: 오른쪽부터 찾음. the last index.
                    # combine the words of the text into a string using s as
s = ' '.join(tokens)
the glue
'' 이용해서 tokens 안에 있는 것을 join 하라.
function - print, len(), type() 등
```

```
앞에다가 #을 붙여서 노트를 남겨라.
code -> markdown 해도 메모가 된다. (#붙이면 크기 커짐)
모든 Ing 는 for 과 if 를 쓴다.
for 함수:
in 뒤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i에 넣어서 실행한다.
range 라는건 뒤 괄호에 만약 4가 들어가면 0부터 3까지의 리스트를 만들어준다. 4
라는건 4개의 인덱스를 만들어줘라 라는 뜻.
>>
a = [1,2,3,4]
for i in range(4):
   print(a[i])
>>
1
2
3
4
>>
a = [1,2,3,4]
for i in range(len(a)):
   print(a[i])
>>
1
2
3
4
enumerate 번호를 매기는 것.
>>>
a = ['red', 'green', 'blue', 'purple']
b = [0.2, 0.3, 0.1, 0.4]
for i, s in enumerate(a):
   print(i,s)
>>>
```

0 red

```
1 green
```

2 blue

3 purple

어떤 format 으로 하고 싶을 때, 내가 넣고 싶은 변수 자리에 중괄호{} 넣어서 만든다. format 뒤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이 중괄호 안으로 들어간다.

>>>

a = ['red', 'green', 'blue', 'purple'] b = [0.2, 0.3, 0.1, 0.4]

for i, s in enumerate(a):

print("{}: {}%".format(s, b[i]*100))

>>>

red: 20.0% green: 30.0% blue: 10.0%

purple: 40.0%

zip 은 그 자체나 print 함수로 출력되진 않고 list(zip()) 해야한다.

zip 함수 : 동일한 개수로 이루어진 자료형을 묶어주는 함수라고 점프투파이썬에 나온다.

조금 더 내 방식으로 설명하면 **각기 다른 개수로 되어있는 자료형일지라도 동일한 개수로 쌍을 지어 묶어준다** 라고 설명하고 싶다.

If 함수

if 에서 통과가 안되면 아예 결과값 안나옴.

syntax 11 번까지 중간고사.

< numpy >

패키지 안에 패키지 만들 수 있다.

numpy.A.D.~

이런식으로 상위개념부터 쓸 수 있다. (패키지 안에 패키지...)

import numpy

한 후에 그냥 numpy.A.D.f 이런식으로 f 함수 쓸 수 있다.

from 이란 것을 쓸 수도 있다.

from numpy import A 이런식으로 ..

그 다음엔 이제 A.D.f 이렇게 접근 가능.

from numpy import A.D

import numpy as np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matplotlib 안에 pyplot 있다.

(from matplotlib import pyplot as plt 라고 해도 똑같다. - 시험 단골 질문)

data = np.random.normal(0,1, 100)
print(data)
plt.hist(data, bins=10)

plt.show()

#정규분표

종 모양의 정규분표 만들기 위해선 min 0,

실행 안하고 싶을 때 %를 앞에 붙여라.

histogram - bins(바구니 몇개로 할지 정하는 것) 데이터값을 바구니에 넣는다.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

csv 파일 github 에 올려놓음.

데이터 줄 때도 csv로 준다.

delimiter: 콤마로 나누자

skiprows: 처음에 x,y 써져있는 row 는 생략해라

savetxt 는 저장.

66 처럼 비교하려면 shape 와 개수 다 똑같아야함.

67 에 a 자체가 numpy. numpy 가 만들어낸 산물.

함수니까 괄호해야하고, 자기자신이니깐 괄호 안에 안써도 됨. a.sum() np.sum(a)랑 똑같다.

numpy 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렇게 쓸 수 있는 것이다.

array([[1,2,3],

[4,5,6],

[7,8,9]])

첫번째 차원은 1,2,3 / 4,5,6 .. 이런 행.

차원은 행 -> 열 이렇게 간다.

puretone (sin, cos wave)

sin 이나 cosin 처럼 생긴 곡선을 sinusoidal 이라고 말한다.

sinusoidal function 을 만들어 내는것을 phasor 라고 한다.

sin function, cos function 도 phasor 가 된다.

sin 하고 cos 에 들어가는 입력값이 뭐지? sin 에 90도 넣고 싶으면 sin(90)이 아니라 radian 값으로 넣어줘야 한다.

파이는 숫자값. 3.141592...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되면서 반복되는게 있는 것.

0 부터 숫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할 때, 2*파이면 6.28....

0 ~~~~~~ 2*파이 (degree 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radian)

0도 ~~~~~ 360도 (degree)

파이는 180 도

0 ~~~ 180 ~~~ 360 도 (deg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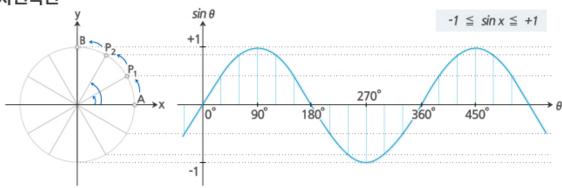
0 ~~~ 파이 ~~~ 2 파이

sin, cos 에 들어가는 입력값은 radian.

2 파이랑 4 파이는 똑같다. 반복되는 것은 똑같은 값이 나온다.

<ph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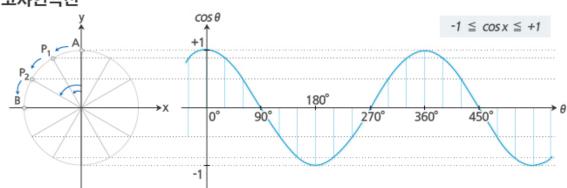
$$\sin(0 - 5) = 0$$

$$sin(90 도) = 1$$

$$\sin(180 \, \Xi) = 0$$

$$sin(360 도) = 0$$

코사인곡선



$$cos(0 도) = 1$$

$$cos(180 도) = -1$$

$$\cos(360 \, \Xi) = 1$$

100 파이까지 몇번 반복할까. 50 번! 왜냐하면 2 파이가 50 번 있으니.

radian 값을 어떻게 적나? - 세타(각도 이야기함). radian 값 쓸 때 많이 씀.

cos(세타)

만약 세타가 3/2 파이면 값은 0이 된다.

sin(세타)

오일러공식: e'세타 i = cos(세타) + sin(세타)i (e 는 상수값. e 는 2.71... 무리수, 자연로그의 밑) (i 는 imaginary의 약자 - 실수의 반댓말. 허수. 허수 i: 루트 -1) 세타값에 따라 달라진다.

f(세타) = e'세타 i 새로운 phasor 만들어냄. (3.14 를 넣으면 -> e'3.14*i 숫자값 나옴)

복소수는 모든 수를 포함한다. 가장 큰 범위. a + bi (e'세타 i) 도 (a+bi)로 표현 가능하다.

e'세타 i = cos(세타) + sin(세타)i

세타 = 0 일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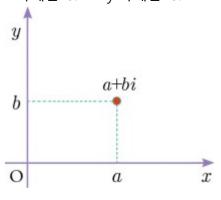
세타 = 파이/2 일때 i

세타 = 파이 일때 -1

세타 = 3/2*파이 일때 -i (4 가지가 반복)

세타 = 2 파이 일때 1

복소수는 어떻게 표현할까? complex plane 복소평면에서. x 축에는 a. y 축에는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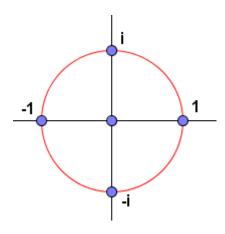
그럼 다시 세타 넣은 값 가져와서 e'세타 i = cos(세타) + sin(세타)i 세타 = 0 일때 1 >> (1,0)

세타 = 파이/2 일때 i >> (0,1)

세타 = 파이 일때 -1 >> (-1, 0)

세타 = 3/2*파이 일때 -i (4 가지가 반복) >> (0, -1)

이걸 복소평면에 찍어보면 이렇게 원이 된다.



벡터는 숫자열.

몇 콤마 몇 (,) 이것도 다 벡터.

벡터값으로 표현된다.

projection. 빛을 비추듯 보는 것.

실수만 보겠다. 하면 위에서 쳐다보면 실수에서만 왔다갔다.

실수만 보면 cos(세타)

허수만 보면 sin(세타)

그래프에서 cos 은 1 부터 시작. sin 은 0 부터 시작.

허수만 본다고 하면 오른쪽에서 쳐다봐서 위아래로 왔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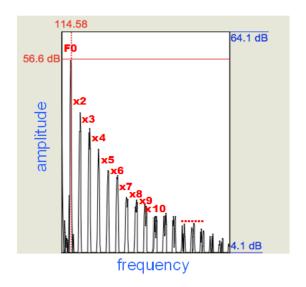
frequency 는 1 초에 몇번 왔다갔다 하는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갈까? 그냥 복소평면에서 왔다갔다 할 땐 안들어있다.

각도 개념 뿐 아니라 초 개념도 넣어줘야 진정한 소리가 완성된다.

소리라는 실체는 반드시 시간의 개념이 들어있어야 한다.

frequency: 진동수 (1 초 동안 진동한 횟수. 단위는 hz. 주파수)



gradually decrea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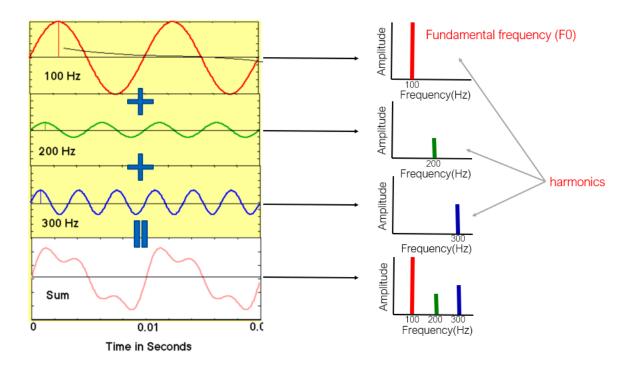
f0 = fundamental frequency = pitch = the number of vocal vibration in a seco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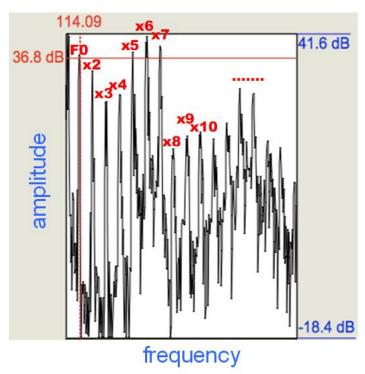
(다 더해지면 frequency 제일 낮은거 따르기 때문)

(frequency 가 x2, x3... harmonics 관계.)

(우리 목소리 pitch 는 f0 과 일치)

(여자가 남자보다 frequency 더 높게 시작해서 더 듬성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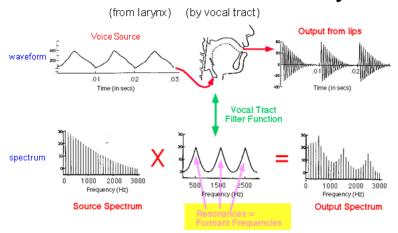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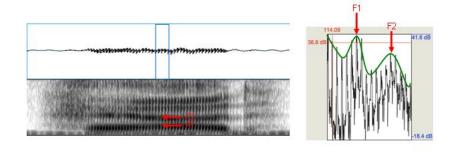
filtered by vocal tract 되면 이렇게 배음의 구조는 깨지지 않았지만, amplitude 의 패턴은 깨진다.

정이110 정이111 정이112 정이139

Source-filter theory



Spectrogram



- · Airplane view of temporal concatenation of spectrum!
- Dark band: mountains = Formants

f1 과 f2 만 있으면 모음 구분 가능.

f0 과 f1,f2(formant) 는 상관이 없다.

sampling rate 이 100hz 라고 생각해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1초에 100개라고 생각. 이걸 가지고 우리가 1hz frequency를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답은 있다. 한번 왔다갔다 하면 된다.

2hz도 가능하다. 두번 왔다 갔다.

hz 를 계속 올려서 10000hz 가 가능할까 (1 초동안 만번을 왔다갔다 하게) 1 초에 만번 왔다갔다 하려고 하는데 주어진 숫자는 100 개밖에 없다. 안된다. sampling rate 이 1 초에 충분히 있어야 그만큼의 주파수를 표현할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숫자가 너무 적다.

sampling rate 이 그만큼 있어야 그만큼 표현 가능.

|-----|

주어진 숫자 10개

Sampling rate: 10hz Frequency: 100hz

많아봤자 5 번 왔다갔다 할 수 있음. 5 번 이상 안됨.

주어진거의 반밖에 maximum 이 안된다.

nyquist frequency = sampling rate / 2

cd 유질은 sr = 44100hz

이것의 nyquist frequency 는 22050 hz (표현할 수 있는 frequency의 맥시멈) 왜 cd 음질을 44100로 잡았을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주파수가 20000hz 이다.

유선전화기의 sampling rate 는 8000hz.

4000hz 가 nyquist frequency.

4000 위로 누구인지의 정보가 더 있기 때문에 유선전화기로는 누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핸드폰 16000hz

wave 가 여러 개 쌓여서 성대에서 나는 소리. 차곡차곡 더한다.

sampling rate 의 half 까지 더하면 pulse train 나온다. (x 축 time, y 축은 value) - wave form

frequency 도메인으로 보면 스펙트로그램(x 축은 타임, y 축은 frequency) (어떤 frequency 성분들이 많은지)

여기서 한 슬라이스만 자른다고 생각.

스펙트럼 - 한점의 시간 (x 축 frequency, y 축 amplitude.) 스펙트럼을 시간으로 쭉 나열한게 스펙트로그램

formant 라고 하는게 산맥처럼 만듬.

- 1. amplitude 를 점점 낮아지게.
- 2. 산맥 처음 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주기.(사람 목소리처럼 됨)

wave form

소리를 frequency 로 보면 spectrogram

spectrum (한 점의 시간)

그걸 시간순대로 쭉 보여주는게 스펙트로그램.

gradually decreasing

점점 고주파로 갈 수록 낮아지도록.

<복습>

(3*2) 가 (2*3) 나 (곱하려면 2 가 겹쳐야 한다)

1 3 6 2 0

5 1 3 9 1

6 -1

나 6*가 1 + 나 3*가 3 = 15

결과적으로 3*3

15 29 3

33 19 1

33 3 -1

그냥 나에서 6

3 만 곱하는게 벡터

3*2 (기계) 2*1 (입력) 하면 2 없어지고 결과는 3*1 15

33

33

(출력)

순서를 거꾸로해서 6,3을 가에 먼저 곱하게 놓으면 2*1 과 3*2 가 겹치는게 없어서 곱해지지가 않는다.

6 3 을 가로로 [6 3] 으로 놓고

[A] (3*2)

1 2

-1 0

3 5

column 쪽에서 space 생각해보면 3*2 에서 3 (칼럼 차원에서의 whole space 는 3 차원) columize whole space 는 3 차원.

column space 는 plane.

spanning (길게 확장시키는 것)

2 차원의 plane 나온다. 이게 칼럼 스페이스. 칼럼 벡터를 표현하고 원점과 연결해서 spanning 시키면.

colum space 와 whole space 는 안 똑같다 (전자는 2 차원, 후자는 3 차원. 후자가 더 크다)

나머지 한 차원을 우리는 left null space 라고 부른다.

영어로 orthognal 이 수직, 직각이란 뜻. 이 평면과 수직이 되는 게 뭘까? 그런 선은 하나가 있다. 이 선은 몇 차원일까?

선이니깐 1 차원. 이게 null space.

총 3 차원이 된다.

A 에 컬럼에 하나씩 a, b 를 곱한다.

plane 을 넘어서지 않는다.

벡터의 합은 평행사변형 해서 만든 점. 그렇게 해서 모든 가능한 점을 찍으면 결국엔 아까 삼각형을 span 한 것과 동일하다.

row whole space 는 2 차원.

row vector space 는 2 차원.

column 벡터 independent 한게 2개. 이것들을 우리는 rank 라고 부른다. row 벡터들은 절대로 independent 하지 않다. 뭘 곱하거나 더해서 (linear combination)을 통해 서로가 될 수 있다.

column 으로 생각하든, row 로 생각하든 independent 한 rank 의 개수는 항상 똑같다. rank 는 두개로 똑같다. (independent 한 개수)

3*2 (whole space - 2 차원)

빼기

2 2 (column/row space)

하면

10(이게 null space)

plane 이 있다고 생각 column space xA = 0

아이겐 벡터

A 벡터에 x를 곱했을 때 원점과 일직선상에 있게하는 모든 벡터를 아이겐 벡터라고한다.

Av = 란다 v

(아이겐벡터) 어떤 벡터 v를 곱했을때 (란다는 어떤 상수) transformation 된게 transformation 안된거의 상수배밖에 안된다. (그냥 확장)

< inner (dot) product >

아무리 차원이 높더라도 두 벡터가 있으면 원점과 삼각형 이룰 수 밖에 없다. (2 차원 평면)

a = [123](1*3)

b = [247](1*3)

a * b 이 둘은 곱하기가 안된다. 곱하려면 b 를 3*1 로 만들자. Transpose 하자. a*b'T [1 2 3] * [2

4

7]

이렇게 하면 31 하나 나옴. (1*1) (이런걸 inner product 라고 하고) (a.b 라고 쓰면된다)

a'T * b 해도 된다.

(3*1) (1*3) -> 3*3 만든다 (이런걸 outer product 라고 한다 - 우린 안배울거다)

a.b = |a| * cos 세타 * |b| 각도 세타 모르면 어떻게 하나? a.b / |a|*|b| = cos 세타 a.b 는 31. |a|는 루트 제곱들, |b|도. cos 세타의 값을 아니깐 세타도 알게 된다.

세타가 90 도면 cos 세타는 0.

inner product 도 0 이 될 수 밖에 없다.

- a 라는 사람과 b 라는 사람이 있는데,
- a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b의 점수.

cos 세타가 cos similarity. (correlation r 과 비슷. 두 벡터가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 두개의 벡터를 주고,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구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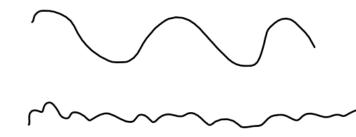
~~ 이런 그래프에 점 100개가 있다.

점 100개로 똑같은 그래프 만들 수 있다.



점 100개 이용

이것도 점 100개, 밑에거도 점 100개 이용



첫번째꺼 곱하기 세번째꺼 하면 inner product 하나, 첫번째꺼 곱하기 두번째꺼 하면 inner product하나

100hz 부터 해서 100hz, 200hz, ... 10000 hz 까지. (sin wave 만드는걸 phase 라고 한다) sin wave 를 똑같은 간격으로 해서 다 inner product 해버린다.

wave 개수만큼 숫자가 만들어진다.

100hz 성분은 어느정도 있구나.

알 수 있다.

스펙트로그램은 어느 부분이 진하고 어느부분이 약하다. (inner product 값과 똑같다) 타임슬라이스 하나에서.

이게 진행되면서 스펙트로그램 만든다.

스펙트로그램에선 100hz 가 제일 밑에 있다.

a,b 는 똑같은 그래프.

c는 좀더 촘촘한 (2 배 빠른) 그래프.

a.b 는 (떨어질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때 같이 올라가고... 이럼 값이 크다) a.c 는 (어떨때는 불일치. 그러므로 값이 훨씬 작을 수밖에)

어떤 복잡한 웨이브에 어떤 것을 그냥 inner product 하면 똑같은 성분 있으면 반응 크게 한다.

frequency 는 완전 똑같은데, 90 도 이동한 그래프끼리는 0 이 나온다. 맹점! phase shift.

a 라는 벡터와 b 라는 벡터. (90 도가 되어야 inner product 0) 벡터 공간에서의 90 도와 그래프에서의 90 도가 같아져 버린다.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sin, cos phasor 말고 complex phasor 써서 inner product 할거다. 그렇게 하면 phase 에 대한 민감도 해결 가능.

a 와 b 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면,

앵글값(세타)에 따라 닷 프로젝트 값이 결정한다. 앵글이 0 에 가까울수록 닷 프로덕트 크기가 커진다.

90 도가 될 수록 최소(0)가 된다.

닷프로덕트: ||b|| ||a|| cos 세타 (a,b 고정되어 있으면 90 도면 최소, 0 도면 최대)

wave 도 벡터.

어떤 웨이브 속에 어떤 사인 성분이 많은가 아는게 중요.

spectral analysis

어떤 frequency 성분이 많은가.

아무리 복잡한 시그널도 웨이브들의 합. fourier 프리에. 조금 조금한 웨이브들이 얼마씩들어있는지 중요. 다 들어있긴 다 들어있는데, 몇 곱하는지가 중요.

그걸 알아낼때 inner product 의 기법을 쓰는것. inner product 하면 그 값으로 얼마들어있는지 알 수 있다.

두가지 phasor 가 있다.

complex phasor (e'세타*i)

웨이브 조금 이동했다고 0 이 되어버렸다. target wave 에 대해 여러가지 웨이브 만들어서 probe 한다.

target 을 조금씩 shift 했다고 해서 phasal senstivity 가 너무 크다. 아이디어 좋았지만 쓸 수 없다. 그래서 complex phasor 써야함.

(sin 이나 cos 으로 만든거) -> 실수값 나와서 plotting 가능하다

웨이브-sin,cos / 스프링-complex phasor

우리는 그래서 sensitive 하지 않은 complex phasor 를 쓸거다. (e'세타 i 로 만든거) 곱하기 할 수 있지만, 콤플렉스 넘버 벡터니깐 허수를 포함하는 complex number 가나온다. -> plotting 불가능 (실수가 아니라서) (그래서 절대값 씌운다. |a+bi|) 절댓값은 그래프에서 원점에서부터 점까지의 길이다.

inner product 할 땐 두개의 dimension 똑같아야 함.

<Numpy>

Numpy 도 중요하고

reshape 은 아주 중요한 function, reshape 에 대한 이해 해야함 NumPy I/O 가 어떤 역할 하는지 알아라 random 관련된건 모두 중요하다

파이썬에서 모듈 어떻게 불러와서 쓰는지두 중요하다

as from import 이런것들

matrix 이런거 안한건 안해도 된다.

matrix 의 차원이란 것은 1*4 이런거 이런걸 벡터라고 부르고 3*4 라고 하면 직사각형 sum 을 할땐 어떤 방향으로 sum 을 할건가.

5.3 Aggregate

a 가 3*3.

axis=0, axis=1 이런식으로 지정해줬다.

a + b

뭔지 알아야하고

c= np.arange(4).reshape([4,1]) 이런 것도 알아야한다.

<Sound> ppt

벡터의 개수, 벡터의 사이즈 차원 공간에서 한 점으로 찍힌다. 100 차원이어도 한 점에서 찍힘.

vector multiplication 벡터에 상수값 곱하기 기하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기하학적 의미 다 이해해야 함.

[3 [2

4] + 1] 이런것도 슬쩍 지나갔어도 시험에 나올 수도.

vector spaces

linear combinations

전체의 whole space 에서 얼만큼 차지하는가.

column space 라고 할 때
column vector 들의 모든 가능한 linear combination 이
column vector 들이 갖는
spanning = column(vector) space

만약 dependent 하면 아무리 linear combination 하든 뭘하든 그 선상을 넘어설 수가 없다.

whole space: R'3 (컬럼 벡터가 갖고 있는 whole space, 로우 벡터가 갖고 있는 whole space 다 있다)
Column space: R'3

transpose 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column 의 관점에서 2 차원 plane

45pg ppt 중요! R'2 를 넘어설 수가 없다. redundant 한 경우

44pg 는 redundant 한 경우가 아니다. one matrix. column space, independent 하니깐 plane 로우스페이스는 2 차원.

독립적인거 rank

남는 부분을 null space.

48pg : 위에껀 column vector 관점에서의 whole space.

밑에껀 row vector 관점에서의 whole space.

두개는 완전 다른 두개의 세계. (독립)

위에껀 한 차원이 남는다.

남는 부분을 null space.

null space 가 무슨 의미 갖는가 그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58pg Ax=b 개념 매우 중요. 시험에 나온다.
matrix A 가 곱해져서 출력 벡터 b 가 나온다.
차원이 중요하다. 몇바이몇인지.
x 가 만약 3*1 이면 A 가 뭐 바이 3 밖에 되지 않는다.
transformation matrix = A
transformation 의 형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61pg : 왼쪽 matrix 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62pg: 왼쪽 column 1,0 / 오른쪽 column 0,1

78pg Detransformation inverse matrix 움직였던 것을 다시 inverse. 입력으로 갔던걸 다시 출력으로 오게하는 A'-1*b = x (원래는 A*x=b 였다)

eigenvector 가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걸로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건 99pg 개념 이해하는 것 반드시 1,1 일 필요는 없지만 이해 돕기 위해서.

어떤 matrix 에 아이겐벡터가 뭐냐. matrix 가 있어야 한다.
그 matrix 이 아이겐벡터가 뭐냐.

원점과 입력과 출력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경우가 생긴다.
109pg 오른쪽.
이런 벡터를 다 찾아보면 이 선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transformation 거치더라도 원점과 자기자신, 결과값이 일직선상에 있다.
Av = #v (# = eigenvalues) (v = eigenvectors)
이 식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한다.

109pg 에서 v도 eigenvector고 저 선상에 있는 모든 v들은 eigenvector가 된다. 우리가 벡터란 얘기할 때 방향에 더 관심 갖는다.

eigenvector 는 저 v 하나다 라고 얘기해도 괜찮다.

eigenvalue 가 뭐냐.

eigenvalue 는 여기서 저 상수값에 해당하는 것.

Av 까지 가는 값의 몇배가 되는 ratio.

5 배다. 그러면 란다 값이 5. 아이겐밸류이 matrix는 2*2아이겐 벡터 2*2에선 두개 존재3*3에선 세개 존재.한 방향으로만 존재하는게 아니다.

<Sound> jupyter notebook

phasor

parameter 바꾸면 새로운 phasor 생김.

원래 기본적으로 phasor 의 인풋은 theta.

실제 소리를 생각을 할 때 소리를 만들 때 사인웨이브를 만들기도 해야하지만 시간도 할당되어야 한다.

각도값에다가 미리 time 값을 입혀놔야 나중에 plot 을 하던지 play를 할 수가 있다.

plot 에 대해선 각각의 axis 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아야한다.

sin wave 에서는 한 점이 벡터다.

무슨 벡터? 시간 콤마 값이 되는 벡터. (처음 나오는 그림)

밑에서보면 한 점은 3차원 벡터. (스프링같은 그림)

t, a, b 이렇게 있는.

어떤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sin, 하나는 cos 이 보여진다.

imaginary 에서 왔다갔다하는건 sin 과 같다.

위에서 보는건 cos 과 일치.

Generate pulse train 이건 중간고사 이전과 연결된다.

저 부분을 보지 않더라도 이해하면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라. 무한대로 하면 진짜 줄만 생긴다.

given sampling rate 에 대해서 표현 가능한 최대치가 얼마가 되는가.

어떤 mp3 는 표현 가능한 frequency 는 5000hz 밖에 안된다.

돌고래(5000hz 이상) 의 소리는 녹음이 안된다.

돌고래가 20000hz의 아주 고주파를 낸다.

그러면 sampling rate 를 40000 이상 높여야 고주파가 잘 잡힌다.

초음파 (high frequency)가 100000hz 라고 치면 sampling rate 이 20 만 정도 있어야한다.

표현 가능하다는게 뭔지 알아야한다.

우리가 만약 pulse train 을 만들면 그 pulse train 의

x 축은 time. 단순한 wave.

이 웨이브를 주파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주파수가 많은지 분석. spectrum.

pulse train 의 spectrum 을 보면 harmonics. 제일 베이스 되는 것부터

2배, 3배가 되는게 같은 크기만큼 들어가있다.

사람의 목소리는 고주파로 갈수록 점점 약해진다.

제일 저주파는 우리의 피치와 일치. (f0. 이것의 자연수배가 된다)

스펙트럼 상에서 산맥을 우리가 잘 깎아야한다.

고주파로 갈수록 amplitude 를 약하게.

산맥을 어디에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른 자음이 나온다 -> 이건 틀린말 모음이 달라진다.

제일 첫번째 한 작업이 In [126]

resonance 라는 누가 만들어놓은 함수 이용.

RG 는 산맥을 어디에 위치시킬까.

BWG 는 산맥을 얼마나 뚱뚱하게 만들건가. 크면 클수록 완만.

100 이면 아주 완만.

산맥을 0 에다가 만들었다. 그러면 고주파로 갈수록 완만히 깎는 첫번째 작업을 한다. 이게 성대에서 일어나는 일.

이 이후가 vocal tract 이 filter 역할.

500 에 하나, 1500 에 하나, 2500 에 위치시킨다. (1,2,3 formant)

이게 영어에서 얘기하는 schwa 와 일치한다. 스트레스가 없는 부분을 schwa 라고 부른다. 3500, 4th formant 까지 만들어보았다.

제일 마지막은 입술에서 나가는것. In 131. 더 크게. 퍼져나가게.

Fourier transform 이 제일 중요.

omega = 2*np.pi*n/nFFT # angular velocity z = np.exp(omega*1j)**(np.arange(0,nSamp))

이 부분이 제일 중요.

어떤 길이의 wave 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길이만큼 for loop를 하는 거다.

complex phasor 를 써서 하는거 중요.

amp.append(np.abs(np.dot(s,z)))

왜 absolute 썼는지 중요.

complex number 의 절댓값이 뭐냐.

콤플렉스 도메인의 a 콤마 b 를 찍고

dot product 가 이번학기에 제일 중요한거.

plot 절댓값을

In 134: half 는 말이 안된다.

half 에 해당하는걸 spectrum.

이 스펙트럼을 다시 visualize 한걸 스펙트로그램.

이걸 어떻게 스펙트로그램화가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

preprocessing signal

In 101 어떻게 analyze